

## 경영대학원 교육에 대한 평가 및 기대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 호 상\*\*  
하 영 원\*\*\*  
민 재 형\*\*\*  
이 정 진\*\*\*\*

이 논문에서는 MBA과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영대학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영교육과정을 고객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향후 우리나라 경영교육의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이를 위해 서강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및 MBA과정 졸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세번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 산학협동 및 사례연구를 통한 실무적용교육, (2) 공동체 의식과 인간관계 등을 중시하는 인성교육, (3) 국제적 감각을 심어줄 수 있는 세계화 관련 교육 등이 우리나라 경영대학원의 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으로 나타났다.

### 1. 서 론

세계화(Globalization)로 표현되는 환경의 변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변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변신의 필요성은 또한 대학교육의 질적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왜냐하면 기업은 변신의 핵심이 되는 인적자원을 대학으로부터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대학들은 이러한 기업의 대학 교육 변화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대학교육협의회 및 언론매체들에 의한 대학교육평가에 따른

\* 이 연구는 서강-IBM Partnership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대학들간의 경쟁심화 그리고 국내교육시장의 대외개방 등으로 인하여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우리 기업은 대학의 산출물인 졸업생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대학 졸업생의 품질에 상당한 회의를 품고 있다. 즉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대학은 고객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사실 미국에서도 1990년대에 들어와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경영교육에 대한 불만은 대단하였다. 대학들에서 심지어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MBA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고 배출된 학생들을 기업에서 고용해본 결과, 그들은 기업에서 현재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팽배했다. 따라서 기업들에 대한 사내 재교육을 실시해야 했으며, 이러한 재교육으로 기업은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되었다. 이러한 고객 불만족은 기업의 대학 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고, 심지어는 MBA 무용론까지 대두된 적이 있었다(Kim, 1994). 물론 이러한 현상은 대학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경영교육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산학협동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대학이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게 하기 위해 대학과의 연계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Gitlow, Einspruch, Loredo, and Percival, 1994).

미국의 버지니아 경영대학원이 최근 졸업생들과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성공하는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을 조사한 결과 의사소통 및 자기표현 능력, 리더십, 전략적 분석능력, 전반적인 경영비전, 조직변화를 관리할 줄 아는 능력, 대인관계, 외부환경의 이해, 팀워크 능력, 컴퓨터 이용, 국제경영에 대한 이해, 여러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중요한 자질로 파악되었다. 이는 지금까지의 MBA 교과과정이 각 기능영역별로 기술적이고 계량적인 면을 강조해 왔으나 국제감각, 리더십, 의사소통능력 및 팀워크 등을 배양할 수 있는 새로운 교과과정이 절실함을 말해주고 있다.

펜실베니아대학교 워튼스쿨도 경영대학원 졸업생 및 산업계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경영대학원 고객들의 욕구파악을 위한 광범위한 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과 생산관리의 통합교과목 개발 그리고 금융공학과목의 개설 등을 추진하였다(Kleindorfer, 1993).

시카고대학교는 리더십과 팀워크를 배양하기 위하여 LEAD(Leadership Exploration and Development)라는 과목을 첫해에 필수과목으로 이수하게 하였으며, 컬럼비아 대학교는 국제경영 관련 강좌를 확대시켰다.

인디애나대학교는 1학년 1학기에 기본필수와 전문필수 두 과목과 일주일 단위의 워크숍을, 2학기에는 기능필수와 워크숍을 개설한다. 기본필수는 주 12시간으로 교수 5명이 경영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술, 즉 회계학·계량분석·조직행

위·경영경제학을 공동으로 가르치고 학점도 공동으로 받게 된다. 전문필수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즉 리더십·창의성·기업가 정신·전략적 인적자원관리·협상력·윤리의식 등을 다룬다. 2학기에는 기본필수의 후속으로 선택하는 기능필수에서 재무, 생산, 마케팅 등 각 기능을 통합하는 기법과 국제적인 감각을 배우게 된다.

워싱턴대학교(시애틀소재)는 첫 해에 다양한 기능분야를 3개의 트랙(track)으로 통합하였고, 의사소통과 팀워크, 세계화 및 기업윤리를 강조하여 산업계와의 연계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메릴랜드대학교는 리더십, 워싱턴 D.C. 현장실습, 팀워크 개발, 기업윤리, 국제경영 시뮬레이션, 종합적 품질경영(TQM) 등의 주제에 대하여 ELM(Experimental Learning Modules)이라는 1주일 단위의 미니코스를 개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매학기 2개의 ELM을 택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메릴랜드대학교는 학생들의 욕구파악을 적기에 함으로써 교수의 강의진행 방식 등을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학생들에 의한 강의평가를 학기말이 아닌 학기중반에 실시하며 또한 매 강의 종료시에 'one minute essay'라는 형식으로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강의에 참고하고 있다.

미국 IBM 국제재단(IBM International Foundation)은 그 동안 메릴랜드대학교, 위스콘신대학교 등 미국내 8개대학에 재정지원을 하여 대학교육에 종합적 품질경영(Total Quality Management : TQM) 개념을 도입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여 왔다(Seymour, 1993).

1994년 11월 미국이외 국가의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이 IBM 국제재단에 의해 TQM 개념의 도입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1997년까지 3년동안 재정지원 및 자문을 받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은 TQM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그리고 교무행정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할 계획이며, 그 첫단계 작업으로서 고객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산업계 최고경영자,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경영교육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으며, 어떠한 능력을 대학에서 길러주기를 원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다음의 연구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경영대학원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노력에 참고가 되리라 여겨진다.

## 2. 최고경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최고경영자층이 우리나라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영교육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1) 조사 방법

#### (1) 표본

1995년 11월 현재 서강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Sogang Top Executive Program: STEP)에 재학중이거나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재학생 52명으로부터는 직접 응답을 받아냈고, 이미 STEP 과정을 수료한 570명에게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 응답하여 회신하게 한 결과 110부가 회신되어 총 162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 (2) 설문내용

설문지에 포함된 주요항목은 연구자들이 토론을 통해 도출한 것이다. 즉, 신입사원 채용시 최고경영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들과 우리 나라 대학교에서 경영교육을 받은 기존 및 신입사원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더하여 우리 나라 대학교에서 경영교육을 받은 자사직원들에게 불만족 한 경우 앞으로 대학에서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교육내용과 2000년대 대학교의 경영교육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측면, 그리고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에서 특히 바라는 점 등을 자유응답형으로 질문하였다.

#### (3) 응답자 특성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임원과 중소기업의 회장 또는 사장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군장성,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등이 약간명 포함되어 있다.

응답자들의 나이는 대부분 40대나 50대 였으며 기업의 규모는 연간 매출 1,000억원 이상의 중견 내지 대기업의 임원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 표 1 >과 같다.

< 표 1 > 최고경영자 과정 설문응답자 특성

전체	응답자 직업				연령					성별		
	제조업	서비스	기타	무응답	30-40	40-50	50-60	60-	무응답	남	여	무응답
162	59	66	33	4	3	64	90	3	2	154	6	2
100%	36.4%	40.7%	20.4%	2.5%	1.9%	39.5%	55.6%	1.9%	1.2%	95.1%	3.7%	1.2%

  

전체	근무직장의 규모						직급				
	100억 미만	100억이상 - 500억미만	500억이상 - 1000억미만	1000억 이상	기타	무응답	회장	사장	임원	기타	무응답
162	31	28	12	73	11	7	5	60	87	8	2
100%	19.1%	17.3%	7.4%	45.1%	6.8%	4.3%	3.1%	37.0%	53.7%	4.9%	1.2%

## 2) 조사 결과

### (1) 신입사원 채용기준의 중요도

신입사원 채용시 사용할 수 있는 12개의 기준들에 대해 최고경영자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5점척도(1: 전혀 중요하지 않다, 5: 매우 중요하다)를 이용하여 질문해 본 결과, 12개의 기준들이 모두 중요하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회사내의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하는 능력, 업무처리에 있어서 의욕, 리더로서의 잠재력, 원만한 대인관계 등의 인성 및 인간관계에 관한 항목들이 특히 높은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외국어 구사능력, 국제적 시야 등은 순위로 보아 중간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량적, 분석적 능력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 표 2 > 와 같다.

< 표 2 > 신입사원 채용기준의 중요도

순위	설 문 항 목	평균값	표준편차
1	회사내의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하는 능력	4.815	0.489
2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의욕	4.790	0.528
3	장차 팀이나 조직을 이끌수 있는 리더로서의 잠재력	4.575	0.640
4	의사결정능력	4.352	0.784
5	원만한 대인관계	4.342	0.751
6	외국어 구사능력	4.296	0.730
7	세계일류 품질지향성	4.286	0.825
8	의사소통능력	4.198	0.795
9	국제적 시야	4.160	0.803
10	컴퓨터 활용능력	4.117	0.844
11	실무적응능력	4.086	0.759
12	계량적, 분석적 능력	3.981	0.807

### (2) 경영교육을 받은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

최고경영자들이 대학교에서 경영교육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5점척도(1: 매우불만족, 5: 매우만족)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매우 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한 응답자는 많지 않았으며,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은 응답자가 가장 많고, 만족한 응답자가 불만족한 응답자 보다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 표 3 >과 같다.

< 표 3 > 경영교육을 받은 사원들에 대한 만족도

구분	빈도
매우 만족	2.4%
대체로 만족	28.7%
보 통	47.0%
대체로 불만족	17.7%
매우 불만족	1.8%
잘 모르겠음	2.4%

(3) 향후 대학에서 치중해야 할 교육내용

대학교에서 경영교육을 받은 사원들에게 대체로 또는 매우 불만족한 응답자들의 경우, 앞으로 대학교에서 치중해야 할 경영관련 교육내용에 관하여 자유응답형으로 질문해 본 결과, 사례연구 등을 강조하는 실무위주교육과 인성교육 측면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 표 4 >와 같다.

< 표 4 > 향후 대학에서 치중해야 할 경영관련 교육(복수응답 기능)

구분	빈도
산학협동 및 사례연구 등을 활용한 실무적용교육	40
공동체 의식·인간관계 중시의 인성교육	33
외국어 등 국제적 안목을 심어주는 교육	5
21세기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3

(4) 2000년대 경영교육의 강조점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대학교에서 경영교육의 어떤 면들을 특히 강조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실무적용 교육에 관련된 응답이 107개로 가장 많았으며 세계화, 외국어 등을 고려한 국제적 안목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과 관련된 응답이 51개, 인성교육 측면이 35개의 순이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 표 5 >와 같다.

< 표 5 > 2000년대 경영교육의 강조점(복수응답 가능)

구분	빈도
1. 실무적용 교육	107
(1) 정보·통신 관련교육 및 산학협동·사례연구 등을 이용한 실무적용교육	48
(2) 창의성·의욕·vision 등을 갖게 하는 교육	32
(3) 전문지식습득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27
2. 세계화 및 국제적 시야를 키워주는 교육	51
세계화 및 외국어 등을 고려한 국제적 안목을 심어주는 교육	51
3. 인성교육	35
(1) 인간관계, 인간성을 중시하는 인성교육	31
(2) 사회기여, 사명감 및 봉사정신 등을 강조하는 교육	4
계	193

(5) 서강대학교에서의 경영교육에 바라는 점

서강대학교의 경영대학과 경영대학원에서 실시되는 경영교육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라는 자유응답형 질문에 대해 89개의 응답이 있었는데, 이들 역시 실무적용 교육에 관련된 응답(48개)이 가장 빈도수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성교육(19개), 세계화 관련교육(18개), 연구위주의 교육(4개)의 순이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 표 6 >과 같다.

< 표 6 > 서강대학교의 경영교육에 바라는 점(복수응답 가능)

구분	빈도
1. 실무적용 교육	48
(1) 정보·통신 관련교육 및 산학협동·사례연구 등을 이용한 실무적용교육	29
(2) 창의성·의욕·vision 등을 갖게 하는 교육	10
(3) 전문지식 습득, 세미나 등을 통한 전문가 양성교육	9
2. 인성교육	19
(1) 인간관계, 인간성 및 참교육 등을 중시하는 인성교육	16
(2) 사회기여, 사명감 및 봉사정신 등을 강조하는 교육	3
3. 세계화 관련교육	18
세계화 및 외국어, 해외연수 등을 통한 국제적 안목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	18
4. 연구위주의 교육	4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연구위주의 교육	4
계	89

### 3) 논 의

최고경영자 과정의 재학생 및 수료생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임원들이 대학교에 바라고 있는 경영교육 내용과 2000년대에 이루어져야 할 경영교육의 방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기업의 임원들은 협동심, 리더십 등을 강조하는 인성교육, 이론 그 자체보다는 실제 현실에서 적용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산학협동, 사례연구 등을 통한 교육 등을 실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점차로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변화해 나갈 2000대에 더욱 더 절실하게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는 세계화 관련교육이 경영대학에서 실시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여러 종류의 문항에 대해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응답경향으로서, 서강대학교 경영대학과 경영대학원에 바라는 점도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 3. 서강대학교 MBA과정 졸업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경영학석사(MBA) 학위과정을 수료한 동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재학시 받았던 교육의 내용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았다.

### 1) 조사 방법

#### (1) 표본

1980년 이후 MBA 과정을 수료한 동문 중에서 연락이 가능한 약 1,000명에게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그 가운데 회수된 46매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sup>1)</sup>.

#### (2) 설문내용

설문지에 포함된 주요항목은 연구자들이 토론을 통하여 도출한 것이다. 첫째, 기업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습득해야 하는 각종 능력들의 중요도를 측정하고자 하였고 둘째, 그러한 능력들을 경영대학원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대학원의 장·단점 및 2000년대 우리 나라 대학교 경영교육에 있어서 특히 요구되는 교육에 대한 자유응답형 질문들이 제시되었다.

(3)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연령, 성별, 학부전공, 근무지의 업종과 규모, 직급, 직장경력 등의 분포는 < 표 7 >에 요약되어 있다. 연령 면에서 40세에서 44세가 전체의 34.8%로 가장 높았다. 또한 대부분이 10년 이상의 직장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직급상으로도 거의 모두가 과장 이상의 중견사원들이었다. 직종 면에서는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서 2배 가량 많았으며, 규모 면에서는 연간 매출액 1000억 이상의 중견 기업에 근무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 표 7 > 응답자의 특성

전체	응답자의 직업			연령					성별		학부전공				
	제조업	서비스	기타	30-35	35-40	40-45	45-50	50세 이상	남	여	경영 무역	경제 신방	공과	기타	무응답
46	12	21	13	1	14	16	10	5	43	3	11	10	7	10	8
100.0%	26.1%	45.7%	28.3%	2.2%	30.4%	34.8%	21.7%	10.9%	93.5%	6.5%	23.9%	21.7%	15.2%	21.7%	17.4%

전체	근무직장의 규모					직급						직장경력		
	100억 미만	100억- 500억	1000억 이상	기타	무응답	사장	임원	부장	과장	대리	결측치	5~10	10 ~ 15	15년 이상
46	31	4	7	28	7	1	12	11	19	1	2	6	14	26
100.0%	19.1%	8.7%	15.2%	60.9%	15.2%	2.2%	26.1%	23.9%	41.3%	2.2%	4.3%	13.0%	30.4%	30.4%

2) 조사결과

(1) 기업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습득해야 하는 각종 능력들의 중요도

경영대학원이 학생들의 어떠한 능력들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업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습득해야 하는 각종 능력들의 중요도를 5점척도(5가 가장 긍정적인 대답)를 이용하여 질문해본 결과가 < 표 8 >에 요약되어 있다.

1) 설문에 대한 응답률이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므로 무응답 오류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응답자와 무응답자 사이에 인구통계학적 특성상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우선, 다른 사람들과의 협조능력, 업무에 대한 의욕, 의사결정 능력, 리더십, 원만한 대인관계, 의사소통 능력 등이 높은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외국어 구사능력, 컴퓨터에 관한 지식, 계량적/분석적 능력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응답자들은 개인의 독자적인 지적 능력보다는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을 더 중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지식을 실무에 활용하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 '세계화에 대한 인식' 항목에 대한 응답은 세계화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홍보되고 있지만 의외로 이에 대한 중요성은 아직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 표 8 〉 기업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중요도 설문항목에 대한 평균

순위	설문항목	평균값	표준편차
1	회사내의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하는 능력	4.739	0.575
2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의욕	4.739	0.535
3	의사결정능력	4.733	0.539
4	리더쉽	4.717	0.455
5	원만한 대인관계	4.500	0.782
6	의사소통능력	4.478	0.586
7	지식을 실무에 활용하는 능력	4.304	0.628
8	질적 우수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	4.283	0.779
9	외국어 구사능력	4.152	0.729
10	컴퓨터에 관한 지식	4.087	0.661
11	계량적·분석적 능력	4.044	0.796
12	세계화에 대한 인식	3.848	0.848

(2) 상기 능력들의 경영대학원에서의 습득정도

상기한 능력들을 경영대학원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었는가에 관한 설문결과가 < 표 9 >에 요약되어 있다(5점척도 이용).

< 표 9 > 상기 능력들을 경영대학원에서 습득하였는지에 관한 설문항목의 평균

순위	설문항목	평균값	표준편차
1	질적 우수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	3.565	0.935
2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의욕	3.543	0.936
3	의사결정능력	3.500	0.913
4	지식을 실무에 활용하는 능력	3.478	0.809
5	계량적·분석적 능력	3.370	0.947
6	세계화에 대한 인식	3.196	0.957
7	원만한 대인관계	3.087	0.962
8	리더십	3.043	1.010
9	회사내의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하는 능력	3.022	0.977
10	의사소통능력	2.935	0.879
11	외국어 구사능력	2.457	0.912
12	컴퓨터에 관한 지식	1.870	0.885

여기에서 우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항목들에서의 평균치가 < 표 2 >에서의 평균치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이다. 두 항목 간의 직접적인 수치 비교의 한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은 경영대학원의 교육효과(effectiveness)에 대해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고 있다.

< 표 9 >에 나타나 있듯이 질적 우수성에 대한 인식, 업무처리에서의 의욕, 의사결정능력, 실무활용능력 등의 항목은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인 반면, 의사소통능력, 외국어 구사능력, 컴퓨터에 관한 지식 등의 항목은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원만한 대인관계, 리더십, 협력하는 능력 등 앞의 설문에서 높은 중요성을 보인 분야에 대해 경영대학원은 충분한 수련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 (3) 경영대학원의 인적/물적 교육환경

경영대학원의 인적/물적 교육환경에 대한 설문결과가 < 표 10 >에 요약되어 있다. 가장 긍정적인 대답을 한 항목들은 교수들의 강의에 대한 성의, 경영대학원을 통한 자기 개발, 동문들에 대한 평가 등이었다. 또한 학생들은 교수들의 자질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경영대학원에서의 교육을 보람있었던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 시설이나 컴퓨터 시설 등 물리적인 교육환경에 대해

서는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또한 강의실 밖에서의 교수와의 만남도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표 10 〉 경영대학원의 인적/물적 교육환경에 대한 설문항목 평균(5점척도)

순위	설문항목	평균값	표준편차
1	경영대학원의 교수들은 강의에 충실하며 열성적이었다	4.370	0.532
2	경영대학원은 자신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4.087	0.661
3	동문이 아닌 능력에 대한 신뢰 차원에서 사원채용시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생을 동일한 다른 지원자에 비해 선호하겠다	4.044	0.601
4	경영대학원 교수진은 전반적으로 높은 자질을 갖추고 있다	3.957	0.515
5	학생들의 질문에 교수들은 성의있게 답하였다	3.935	0.490
6	경영대학원 재학시 동료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3.891	0.640
7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는 시간과 비용을 들일 가치가 있었다	3.848	0.816
8	입학시 가졌던 기대를 경영대학원은 충족시켜 주었다	3.630	0.679
8	경영대학원 교학과 사무직원들은 학생들에게 협조적이었다	3.630	0.645
9	강의실외에서 교수들을 쉽게 면담할 수 있었다	3.043	0.868
10	경영대학원 도서관의 시설과 도서는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2.630	0.974
11	경영대학원의 컴퓨터 시설은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2.457	0.862

#### (4) 2000년대 기업들의 경영교육에 대한 요구

< 표 11 >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대 우리 나라 대학교 경영교육에 있어서 특히 요구되는 교육에 관한 자유응답형 질문에 대해서, 현장실무 적응능력의 향상을 지적한 대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전문인력의 양성, 정보화에 대한 준비, 다양한 경영기법의 교육 등을 지적하였다. 경영대학원에서의 교육은 보다 현실지향적이며 새로운 경영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로 요약할 수 있겠다.

< 표 11 > 2000년대 우리나라 대학교 경영교육에 요구되는 교육(복수응답 가능)

설문 항목	빈도
▶ 현장실무 적응능력 향상	15개
▶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10개
▶ 정보화에 대한 준비	7개
▶ 환경변화에 대한 예측능력/영향분석기능과 다양한 경영기법	6개
▶ 국제적인 기업의 재무관리/마케팅의 수요 증가 CASE STUDY식 문제해결 산학협동체제의 강조	각 2개씩 (합 6개)
▶ 위탁교육 및 실무교육, 영어교육, 경영혁신 및 창의력, 세계화에 알맞는 교육	각 1개씩 (합 4개)
합 계	48개

(5)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장점

< 표 12 >에서 볼 수 있듯이,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장점을 묻는 자유응답형 질문에 대하여 엄격한 학사관리와 교수들의 높은 자질을 대부분 기술하였다. 서강대학교 전체의 전통과 이미지에 부응하는 엄격한 학사관리는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의 확고한 특징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표 12 >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장점(복수응답 가능)

설문 항목	빈도
▶ 엄격한 학사관리	33개
▶ 교수들의 높은 자질	20개
▶ CASE STUDY	3개
▶ 세미나 등 교육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면서 자유스러운 점 국제적 감각	각 1개씩 (합 3개)
합 계	59개

(6)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단점과 개선사항

< 표 13 >에서 볼 수 있듯이,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단점 및 개선방안을 묻는 자유응답형 질문에 대해서는 이론 중심에서 실무중심으로의 전환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이는 2000년대의 경영교육에 대한 요구와도 일치하는 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과 교수와의 정보교환, 외국의 유명대학과의 교류, 그리고 교육시설의 개선 등을 지적한 응답자들도 많았다.

〈 표 13 〉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변화 및 개선사항(복수응답 가능)

설 문 항 목	빈 도
▶ 이론중심에서 실무중심으로(해당산업부분 전문화 강좌/전공)	9개
▶ 교수와 학생의 정보교환 외국 유명대학과의 교류	각 6개씩 (합 12개)
▶ 교육시설 개선, 전공을 세분화하여 집중교육, 외국석학 초빙특강, 졸업후 모임지속될 수 있는 원우회	각 3개씩 (합 12개)
▶ 졸업후 교육과정 개설(학기제 / 단기과정) 입학시 일정수준이상의 직위 경영자 특혜제공 인간관계 개선 프로그램 및 타 경영대학원과 차별화 국제화에 필요한 교육과목 개설 등	합 15개
합 계	48개

### 3) 논의

위의 설문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우선 경영대학원의 교육은 보다 현실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방법을 이론중심에서 실무중심과 사례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교수들은 학생들과 보다 많은 의견교환을 통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영대학원에서의 교육은 경영자들의 현실적응능력(adaptability)을 키워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급변하는 경영환경하에서 중요한 것은 많이 아는 것보다 아는 것을 변화하는 환경과 상황에 적절히, 그리고 신속히 적용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의 중요성을 응답자들은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설문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셋째, 기업에서 개인의 능력은 조직전체의 효율성 시각에서 평가된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협력해서 일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를 위한 적절한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skill), 원만한 대인관계 등을 포함하는 팀웍(teamwork) 능력의 개발에 경영대학원은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이나 컴퓨터 시설 등에 있어서 대학이 기업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하드웨어의 확충을 위한 투자가 있어야 하겠다.

#### 4. MBA과정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은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는 경영교육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제공하는 경영교육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MBA 프로그램 재학생을 대상으로 경영대학원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1) 조사방법

###### (1) 표본

1995년 2학기에 MBA 프로그램에서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경영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1995년 9월 29일(금)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과목 15분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두 과목 이상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경우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한 과목에서만 하도록 하여, 설문지 응답의 중복을 피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총 273부로 설문지에 응답한 학생들의 학기수는 < 표 14 >와 같다.

< 표 14 > 응답자들의 학기수

전체	학 기 수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이상	무응답
273명	81	59	54	56	14	2	7
100%	29.7%	21.6%	19.8%	20.5%	5.1%	0.7%	2.6%

5학기 이상 학생들의 응답률이 낮은 이유는 5학기 이상 학생들 대부분이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논문학기에 있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 (2) 설문내용

설문지는 총 4부, 40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항목들은 연구자들이 미국 주요 경영대학원 설문지 항목들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변환하여 작성한 것이다. 설문지의 제1부는 서강대학교 MBA 프로그램 교육과정 전반에 관해 재학생들의 만족도 및 요구사항을 묻는 설문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2부는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교과목과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 설문항목들을 통해 재학생들이 요구하는 교과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3부는 현행 전공필수 8과목에 대한 재학생들의 이수 필요 정도를 파악하도록 하였고, 또한 자유응답형 설문항목을 포함시켜 현행 8개 전공필수과목외에 MBA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목(들)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 1, 2, 3 부의 설문항목에서 파악되지 않은 재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경영대학원과 재학생 개인의 발전을 위해 조언할 사항을 자유응답형 설문항목을 통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제4부는 응답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3) 응답자 특성

설문에 응답한 경영대학원 재학생의 특성의 분포는 < 표 15 >에 요약되어 있다. 응답자들이 종사하는 업종은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2배 이상이 되며, 기타에는 군장교들과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의 근무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근무직장의 규모를 보면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 되는 중견 및 대기업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응답자들의 직급은 과·부장급 중간관리자, 대리 이하, 임원 순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약 50%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직장경력은 상당수(응답자의 27.9%)가 5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연령은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자 특성을 보면 현재의 MBA 프로그램 재학생의 상당수가 본 경영대학원의 교육목적에 부합되는 사람들로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중견 및 대기업의 중간관리자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15 〉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의 직업		
제조업	67명	24.5%
서비스	144명	52.7%
기 타	53명	19.4%
무응답	9명	3.3%
합 계	273명	100%

  

연 령		
30세 미만	53명	19.4%
30~39	152명	55.7%
40~49	55명	20.1%
50세 이상	5명	1.8%
무응답	8명	2.9%
합 계	273명	100%

  

성 별		
남	200명	73.3%
여	66명	24.2%
무응답	7명	2.6%
합 계	273명	100%

  

근무직장의 연간매출액		
100억 미만	41명	15.0%
100억~500억	40명	14.7%
500억~1000억	26명	9.5%
1000억 이상	111명	40.7%
기 타	24명	8.8%
무응답	31명	11.45%
합 계	273명	100%

  

직 급		
대리이하	83명	30.4%
과·부장급	130명	47.6%
임원	19명	7.0%
기 타	23명	8.4%
무응답	18명	6.6%
합 계	273명	100%

  

직장경력		
5년 미만	57명	20.9%
5~10	90명	33.0%
10년 이상	109명	39.9%
무응답	17명	6.3%
합 계	273명	100%

## 2) 조사 결과

### (1) 경영대학원의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설문

경영대학원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재학생들의 만족도 및 요구사항을 5점 척

도(1: 전혀 아니다, 5: 아주 그렇다)로 측정해 본 결과, 11개 항목 중 대부분의 항목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2개의 항목은 부정적인 응답결과가 나왔다. 11개 설문항목과 그 응답결과의 평균은 < 표 16 >에 요약되어 있다.

< 표 16 > 경영대학원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설문항목 결과

순위	설문항목	평균값	표준편차
1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교수진은 강의에 충실하며 열성적이다.	4.106	0.630
2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MBA프로그램은 개별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전공분야를 선택하지 않게 하거나, 단일 또는 복수의 전공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	3.822	0.382
3	컴퓨터 또는 통계학의 기본교육을 위해 신입생들에게 개강전 단기기간의 예비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607	0.977
4	나는 서강대학교 MBA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최고라고 자부하며 다시 MBA 프로그램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져도 서강을 선택할 것이다	3.596	0.849
5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들은 과거 학부시절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배웠던 교수들보다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3.581	0.682
6	나는 내가 수강한 과목들에서 시험 및 과제물 등을 통하여 공정하게 평가 받고 있다.	3.566	0.658
7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은 내가 얻고자 했던 바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3.483	0.704
8	전반적으로 볼 때, 내가 수강했던 과목들 간에는 중복되는 내용이 거의 없었다.	3.149	0.942
9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MBA프로그램은 전공분야를 선택함이 없이 경영학 전반에 대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었으면 한다.	3.117	0.167
10	내가 수강한 과목들은 상호 관련성이 결여되어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어렵다고 생각한다(5가 '전혀 아니다'임).	2.722	0.800
11	MBA프로그램의 수강신청의 과목선택의 폭이 넓다.	2.643	0.877

< 표 16 >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본 대학원 교수진의 강의 및 자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자들은 MBA

프로그램이 개별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전공분야를 선택하지 않거나, 단일 또는 복수의 전공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추어 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신입생들에게 개강전 단기간에 걸쳐 컴퓨터 및 통계학의 기본교육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2개 항목을 보면 첫째, 응답자들은 수강한 대부분의 과목들이 상호관련성이 결여되어 경영문제해결의 통합적 접근이 비교적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둘째 수강신청에 있어서 과목선택의 폭이 비교적 좁다는 응답을 하였다. < 표 17 >은 이러한 두가지 문제항목에 대한 응답 분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표 17 > 문제항목의 응답도표

	통합적 접근을 위한 과목들의 상호관련성 결여		수강신청시 과목선택 폭이 넓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2	0.7	21	7.7
아니다	47	17.2	105	38.5
보통이다	101	37.0	98	35.9
그렇다	114	41.8	46	16.8
아주 그렇다	6	2.2	2	0.7
무응답	3	1.1	1	0.4
합 계	273	100	273	100

< 표 17 >을 보면 경영문제해결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과목들의 상호관련성 정도를 묻는 설문항목에서 응답자들은 44%가 과목들의 상호관련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반응했다. 사실, 조직의 경영문제는 어느 한 기능분야의 지식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영학 각 기능분야의 유기적인 통합과 종합적인 사고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영대학원생들의 지적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의 해결방안으로 팀강의 형태의 통합교과목 개발과 실제 경영문제의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사례연구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수강신청시 과목선택의 폭에 대한 설문항목에서는 응답자들의 46.2%가 과목선택의 폭이 좁다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본 경영대학원에서 전공필수로 지정된 과목수가 8개로 (이중 7개 이상을 이수해야함)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선택과목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학생들의 입장에서 전공필수 과목의 부담으로 선택과목의 수강에 소극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경영대학원 요람에 기재된 선택과목들 중에서 많은 과목들이 현

제 개설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이는 교수진의 보강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2) 경영대학원 교과목과 관련된 설문

본 경영대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신설 또는 도입해야 할 과목들과 현재 제공되고 있는 과목들의 과목수 증감여부, 그리고 현행 8개 전공 필수과목의 이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 20개의 설문항목을 3학기 이상 재학생에 한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3학기 이상 재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한 학생으로서 1, 2학기 학생들에 비해 본 설문항목들에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영대학원 교과목과 관련된 20개의 설문항목들에 대해서는 3학기 이상 재학생 126명이 응답하였다.

① 신설 또는 증감되어야 할 과목

신설해야 할 과목과 과목수가 증가되어야 할 과목을 파악하기 위하여 11개 설문항목을 5점 척도(1: 감소해야 한다 또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2: 현재가 적당하다 또는 바람직 하지 않다, 3: 어느 정도 증가해야 한다 또는 바람직 하다, 4: 매우 증가해야 한다 또는 매우 바람직하다, 5: 모르겠다)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 표 18 >과 같이 요약하였다.

< 표 18 > 신설 또는 증가되어야 할 과목

순위	설문항목	평균값	표준편차
1	팀강의 형태의 통합과목 신설(예를 들어, 생산관리+마케팅관리, 통계적 사고력과 그 응용 등)	3.171	0.491
2	전공분야 개설 과목의 수	3.115	0.687
3	국제화·세계화 요소가 포함되는 과목의 수	3.101	0.528
4	기업들과 연계한 프로젝트 과목의 신설	3.057	0.533
5	산업계 인사 초청 강연(특강)의 수	3.024	0.610
6	강의방법으로서 사례연구를 도입하는 과목의 수	3.008	0.614
7	학생들의 적극적인 발표와 토론이 수반되는 세미나형식의 과목 수	2.908	0.628
8	신입생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의 내용과 강도	2.563	0.675
9	통계학 및 계량적 접근방법을 응용하는 과목의 수	2.516	0.644
10	이론적 내용중심의 과목 수	1.1953	0.600
11	전공필수 과목의 수	1.1744	0.763

주) '모르겠다'로 응답한 것은 평균치 산정에서 제외하였음.

< 표 18 >를 보면 11개 설문항목 중 전공필수과목의 수와 이론적 내용중심의 과목 수를 제외한 나머지 9개 항목들이 ‘증가해야 한다’ 또는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팀강의 형태의 과목, 기업들과 연계한 프로젝트 과목이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전공분야의 개설 과목 수, 국제화 요소가 포함되는 과목의 수, 산업계인사 초청강연의 수, 사례연구를 강의 방법으로 도입하는 과목의 수 등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전공필수 과목의 수와 이론적 내용중심의 과목 수는 감소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② 현행 8개 전공필수 과목의 이수 필요성

경영대학원생들은 현행 8개의 전공필수과목 중 7개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각 전공필수 과목의 이수 필요성에 대해서 5점 척도(1: 전혀 이수할 필요가 없다, 5: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로 측정한 결과는 < 표 19 >에 요약되어 있다.

< 표 19 > 전공필수 과목의 이수 필요성

순위	전공필수 과목	평균값	표준편차
1	마케팅관리론	4.198	0.759
2	국제경영학	4.183	0.710
3	재무관리론	3.992	0.728
4	인사관리론	3.923	0.868
5	관리회계론	3.907	0.805
6	무역실무론	3.738	0.710
7	경제학Ⅱ	3.672	0.808
8	생산관리론	3.504	0.923

각 과목에 대한 평균값으로 볼 때, 현행 전공필수과목 모두는 응답자들에게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과목으로 나타났으나, 앞서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은 전공필수과목의 수가 감소되기를 원한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공필수 과목의 적절한 통합내지는 전공필수과목 수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행 8개 전공필수 과목외에 MBA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과목을 기술해 달라는 자유응답형 항목에는 모두 56개의 응답이 있었는데 이중 경영통계학(빈도:17)과 컴퓨터 관련과목(빈도:15)이 가장 응답빈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컴퓨터 또는 통계학의 기본교육을 신입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목들의 전공필수 과목으로의 전환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③ 경영대학원에 바라는 점

상기 언급한 설문지 항목으로 파악하지 못한 경영대학원생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경영대학원과 자신의 발전을 위해 조언할 사항을 기술해 달라는 자유응답형 질문에 대해 총 153개 응답이 나왔다. 이중 응답수가 5개 이상인 사항은 < 표 20 >에 요약되어 있다.

< 표 20 > 경영대학원에 바라는 점

조언 사항	응답수
▶실무와 관련된 사례연구 수업의 개설	19
▶전공필수과목이 너무 많다	14
▶다양한 과목의 개설(전공분야 세분화 및 증설 등)	14
▶유대관계 및 교우관계 개선(비공식적 모임 등)	9
▶학생참여 위주의 수업진행방법(토론, 토의 등)	8
▶외부인사(국내외 굴지 기업의 경영자 등) 초청 강의 및 세미나	5
▶수강인원의 조절(분반 또는 소그룹 운영 등)	5
▶다양한 교재선정 및 update	5

가장 많은 응답수를 보인 사항은 실무와 연관된 사례연구 수업을 많이 개설해 달라는 것으로, 이는 경영학의 실무적용 교육을 강조해 달라는 요구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전공필수 과목이 너무 많다는 의견과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앞서 조사한 설문항목 결과와도 일치하는 의견들로서 다양한 과목의 개설을 위해 전공분야의 세분화 또는 증설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활발한 원우회 활동 또는 비공식적 모임 등을 통해 유대관계 및 교우관계를 개선하자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수업진행 방법, 기업체 인사를 포함한 외부인사 초청강의 및 세미나, 분반

또는 소그룹운영 등을 통한 강의인원의 조절, 다양한 교재의 선정 및 교재의 최신화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들은 앞서 언급한 여러 설문항목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경영대학원은 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이를 새로운 교육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5. 결 론

앞에서 살펴 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교육시켜 주기를 원하는 내용들은 ①산학협동 및 사례연구 등을 통한 실무적용교육, ②공동체 의식과 인간관계 등을 중요시 하는 인성교육, 그리고 ③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심어 줄 수 있는 세계화 관련 교육으로 집약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산업계가 바라고 있는 인재의 능력으로는 ①조직내의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 ②업무처리에 있어서 의욕, ③장차 팀이나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잠재력, ④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⑤원만한 대인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내 경영대학원에서 조사한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그들도 국제화(globalization), 윤리의식(ethics), 리더십(leadership), 의사소통(communication) 등을 강조하고 있다. 즉, 경영대학원이 생산해내는 상품을 수용하는 고객들은 특정분야의 전문지식보다는 조직의 일을 함께 협력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잠재력,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 그리고 윤리의식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세계인을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 경영교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의 경영교육은 지금까지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교육이었고, 학습자(learner)보다는 강의자(teacher) 위주의 교육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은 우리가 존재하는 시스템의 틀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이 추진하고 있는 TQM 프로젝트는 바로 이러한 기존의 틀을 바꾸고 그 틀안에서 벗어나 보다 고객 지향적인 교육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우리 나라 경영대학원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공하는 교육의 틀도 그에 걸맞게 바뀌어져야 한다. 경영교육의 종합적 품질(total quality)이란 학생들을 동료로 여기고 그들과 상호작용할 때, 그리고 기업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파트너로서 그들과 함께 일하고자 할 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Gitlow, Howard S., Norman G. Einspruch, Elvira N. Loredó and Mary McKenry Percival, *Quality Management: A Curriculum Resource Guide*, St. Louis, MO: American Assembly of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1994.
- Kim, Yong H., "Reengineering the U.S. Management Education Programs Through Total Quality Management", Paper presented at the first Sogang-IBM Partnership TQM Seminar, Seoul, Korea, 1994.
- Kleindorfer, Paul R., "Deploying Total Quality Management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aper presented at the University of Rochester Conference on Field Studies in Total Quality Management, 1993.
- Seymour, Daniel, *The IBM-TQM Partnership with Colleges and Universities: A Baseline Report of the Initial Activities and Future Plans of the Nine Partnership Institutions*,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for Higher Education, 1993.